

경희를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들

경희대학교 발전기금 연차보고서 14
2021.3 ~ 2022. 2



지속 가능한 문명건설을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
경희의 길입니다

CREATE
FUTURE
TOGETHER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홈페이지 <http://give.khu.ac.kr> E-mail give@khu.ac.kr

서울캠퍼스

Tel 02-961-0931~2, 2371 Fax 02-961-9554
우편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본관 410호

국제캠퍼스

Tel 031-201-3190~1 Fax 031-201-3192
우편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대학본부 103호



경희는 '학문과 평화'의 새 지평을 구축하고,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핵심가치를 고양해왔습니다.
경희의 학술 역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이는 학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는 후원자님의 소중한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미래를 견인하는 학술 역량 강화에 더욱 진력하고자
합니다.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대학' 경희가
추구하는 대학의 참모습을 실현해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창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총장 인사말	2	나눔으로 미래를 창조하다	모금을 넘어 가치를 창출하다	
경이로운 경희의 오늘		기부 스토리	발전기금 프로젝트	
대학 소식	3	경희를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들	KH-미래과학관 건축 기금	25
한눈에 보는 2021학년도 기부금 현황		지역 동문회 릴레이 기부	META-KHU 미래대학 기금	26
신규 기부자 약정 현황	5	기부 뉴스 타임라인	경희라이언 일만인클럽	28
기부금 모금 현황	6	선배 경희가 후배 경희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아름다운 약속기금	30
기금 사용 현황	7		경희 동문 기업	32
		나눔 스토리	미원(美源) 사업 기금	35
		운연(雲淵)장학금 장학생의 편지	Giver 기부자 명단	38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장학생의 편지	기부 예우	49
		전병익 동문장학 수혜자 인터뷰	기부 참여 안내	55
		재학생 학식 지원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이 경희의 미래를 위한 원동력입니다

경희의 미래는 대학의 미래이자 인류의 미래입니다. 구성원과 동문 그리고 경희를 사랑하는 모든 분의 관심과 참여가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경희의 위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개교 60주년 이후 경희는 국내외 대학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개교 80주년을 바라보는 지금, 경희는 담대한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평화', 즉 학문적 탁월성을 지구적 공헌과 결합시키며 지속가능한 인류문명 건설에 기여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앞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혼재된 과도기입니다. 대학 안팎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확인했듯이 교육과 학습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유통 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와 일자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기후 위기 앞에서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해 대학은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경희의 교시인 '문화세계의 창조', 즉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인류사회 건설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학은 더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적 대전환기는 매우 혼란스럽지만, 도전하고 창조하는 자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그중 어떤 꿈을 공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 천하를 얻는다.' 경희학원 설립자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천하'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경희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더 크게, 더 멀리 생각하겠습니다. 경희의 미래를 응원하고 격려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멋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발전기금 연차보고서 제작에 관여하신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경희의 기부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경희대학교 총장 **한균태**

장학금 국내 1위 2021 대학정보공시 교내 장학금 규모 기준	국제화 국내 1위 2021 THE 세계대학평가 기준	2022년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기준 국내 3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기여도		
학생만족도 사립대 3위 2021년 국가고객만족도 (NSCI) 기준	202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업 신입사원 선발 선호 대학 기준 기업평판도 국내 7위 	호텔관광학 세계 12위 통신공학 세계 29위 2022 상해교통대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 기준		
학생 창업기업 매출액 전국 1위 	학년별 맞춤 제공 취·창업 스쿨 창업 전 과정 체험 KHU Valley 역량 관리 플랫폼 알라딘(Aladdin)	꿈과 도전 지원하는 꿈도전장학 아이디어 실현 공간 오픈랩 홍릉 바이오·의료, 삼익원 등 창업센터		
인간 중심 후마니타스 (Humanitas) 인공지능 인재 양성 	첨단학과 신설 빅데이터융용학과 인공지능학과 스마트팜학과 2022학년도 신설	AI 서버실 구축 인공지능 연구·실습 지원	X-Space 메타버스 기반 실습 공간	AI 브레인 허브 AI 교육·연구 지원 산업계 연결

2021년 국가고객만족도(NSCI)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융합혁신 인재양성 사업' 선정

한눈에 보는 2021학년도 기부금 현황

경희와 함께 미래를 창조하고자 하는 후원자님의 지속적인 정성으로 2021학년도 기부 횟수와 기부자 수는 전년대비 크게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사랑을 기반으로 경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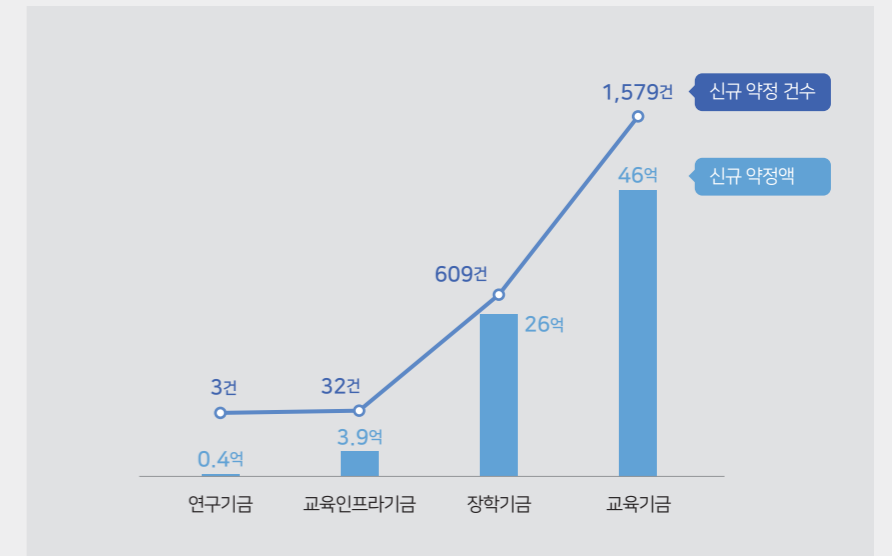
기부금 총액	약정	입금
	약 77 억 원	약 75 억 원
약정 건수	신규	
	2,223 건	
주요 후원 연령	인원 기준	금액 기준
	20 대 38.9%	40 대 31.8%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대학(원)	치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약 7억 4천만 원 서울캠퍼스	약 2억 1천만 원 국제캠퍼스

※ 기부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기부자에 한함 (기업/재단/단체 기부자 제외)

신규 기부자 약정 현황

2021학년도 신규 약정액은 약 77억 원입니다. 그중 교육기금이 총 약정액의 60%인 약 46억 원으로 월등히 많습니다. 이어 장학기금, 교육인프라기금, 연구기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기금은 대학·기관 지정 발전기금과 경희발전기금을 말합니다.

2021학년도
신규 약정액
약 **77**억 원



구분	신규 약정 건수	신규 약정액
연구기금	3건	45,600,000원
교육인프라기금	32건	391,312,000원
장학기금	609건	2,699,224,148원
교육기금	1,579건	4,628,809,438원
합계	2,223건	7,764,945,586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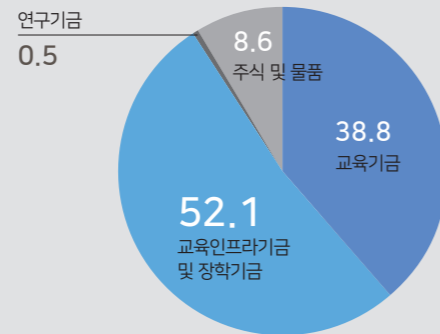
(2021. 3. 1 ~ 2022. 2. 28)

기부금 모금 현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학년도에는 약 75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주식 및 물품으로 후원하는 현물 기부가 증가했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학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따뜻한 손길은 이어졌습니다.

2021학년도
기부금 입금액

약 **7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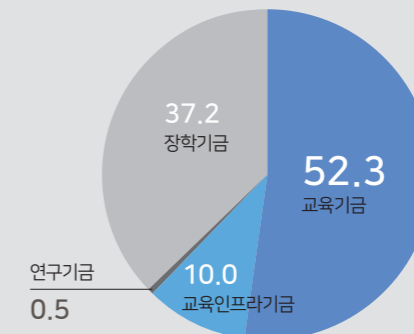
구분		입금액	비율
현금	교육기금	2,948,260,768원	38.8%
	교육인프라기금 및 장학기금	3,956,383,416원	52.1%
	연구기금	34,064,000원	0.5%
현물	주식 및 물품	655,805,857원	8.6%
합계		7,594,514,041원	100.0%

기금 사용 현황

2021학년도 기금의 목적사업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기금이 가장 많았고, 장학기금과 교육인프라기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집중적으로 기금이 쓰였습니다.

2021학년도
기금 집행액

약 **71억 원**



구분	집행액	비율
교육기금	3,719,982,727원	52.3%
교육인프라기금	714,650,760원	10.0%
연구기금	35,359,600원	0.5%
장학기금	2,647,389,760원	37.2%
합계	7,117,382,847원	100.0%

나눔으로 미래를 창조하다

경희대학교의 많은 후원자님께서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금 조성에 힘써 주셨습니다. 든든한 응원에 깊이 감사하며 대학은 교육 및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매진하며 선후배 간의 정을 쌓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뉴노멀’ 시대, 경희는 후원자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대학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희를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들

후배에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선물해주고 싶어

전병익 동문(환경조경디자인학과 76학번, 청암녹화 대표)
아너스클럽 위촉

전병익 동문은 2006년부터 10여 년간 후배를 위해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해 현재까지 누적 금액은 2억 3천여 만 원에 달한다. 대외협력처는 2022년 10월 전 동문을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회원으로 위촉했다. 아너스클럽은 발전기금 1억 원 이상을 기부해 경희 발전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기부자 예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병익 동문은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했던 나와 달리 후배는 생업의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환경조경학과 동문회도 선배의 의지를 잇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너스클럽 위촉식 이후 예술·디자인대학 505호는 전병익 강의실로 재탄생했다.



한의학 노벨수상자,
불가능하지 않다

서효석 동문(한의학과 66학번, 편강한의원 원장)
경희한의노벨프로젝트 기금 1억 원 기부

서효석 동문의 ‘경희한의노벨프로젝트’ 기금 기부식이 2022년 7월 열렸다. 경희한의노벨프로젝트는 2018년 한의과대학관 신축 기념 비전 선포식에서 공표한 한의과대학의 새로운 목표이다. 비전 선포식 이후 관련 기금이 조성됐고, 다양한 동문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서효석 원장은 “이재동 학장이 경희한의노벨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인간중심 미래의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다. 이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다”라며 “통계학이나 이화학적 방법 등을 모두 활용한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해 현대인을 설득해야 한다. 한의학에서 노벨의학상 수상자가 나오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다”라며 모교를 응원했다.



힘든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작은 보탬 되길

故 이규중 명예교수 유족
장학금 20억 원 기부

신문방송대학원(현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故 이규중 명예교수의 부인 김인선 여사가 경희대학교 발전에 평생을 향한 부군의 의지를 되새기면서 기부 의사를 밝혔다. 김인선 여사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20억 원을 기부했다. 이 장학금은 故 이규중 명예교수의 아호를 따 '운연(雲淵) 장학기금'으로 명명했다.

故 이규중 명예교수는 정치외교학과 54학번으로, 1961년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하며 30여 년의 세월을 경희와 함께했다. 재임 중 신문방송국장, 사무처장, 출판국장, 신문방송대학원장 등을 역임하며 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특히 대학신문 창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척박한 환경이었던 경희대학교 캠퍼스 조성 공사를 현장에서 이끌었다.

운연(雲淵) 장학기금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인선 여사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걱정 없이 마음껏 배워 학교와 나라를 빛낼 인재로 성장하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경희로 이룬 '꿈과 희망' 후배들에게 물려줘

박신광 동문(국어국문학과 63학번, ㈜한독모터스 회장)
아너스클럽 위촉

박신광 동문은 2021년 초 모교에 거액을 기부했고, 아너스클럽의 가입자가 됐다. 2022년 7월 아너스클럽 위촉식이 열렸다. 박신광 동문은 “경희는 제 꿈과 희망을 이룬 곳이다. 故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님을 비롯해 국어국문학과 교수님들이 저를 성장시켜주셨다”라며 “사랑하는 후배들도 이 꿈, 도전정신,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며 후배들을 응원했다.

기부금을 기반으로 구축한 '해봉장학금'의 수혜자인 최주호 학생(국어국문학과 17학번)과 정가은 학생(국어국문학과 19학번)의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최주호 학생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도 된다는 응원 같았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하린다”라고 말했다. 정가은 학생은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도움의 기회를 주는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신광 동문의 기부와 해봉장학금 조성을 기념하며 문과대학 305호를 '해봉강의실'로 지정했다.



기부는 문화이자 생활

이희중 동문(음악대학 83학번)
2억 원 약정

2022년 6월,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음악대학 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91년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슈퍼마켓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희중 동문이 2억 원을 약정했다. 이희중 동문에게 이번 방문은 유병엽 교수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이희중 동문은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지 않을 정도는 됐다. 유 교수와의 약속이 마음속 빛이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뭔가 모교에 보탬이 될 일을 찾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도 미국처럼 기부문화가 정착돼 교육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경희가 지금까지의 발전을 넘어 세계에서 우뚝 서면 좋겠다”라며 모교의 발전을 응원했다.



'아껴서 쓰자'라는 생각으로 기부금 마련해

이희돈 일본어학과 교수
퇴임 이후 12년간 기부

정년 퇴임 이후 한 노(老)교수는 매일 용돈 만 원을 저축했다. 그는 매일같이 아껴서 저축한 돈을 들고 퇴임한 학교를 찾아 기부했다. 퇴임 이후 기부를 시작한 지 12년이 지났고 누적 기부금액은 4천만 원에 이르렀다. 2000년 퇴임한 일본어학과 이희돈 교수의 이야기다. 경희대는 최근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이희돈 교수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희돈 교수는 “아껴서 쓰자”라는 생각으로 마련한 적은 금액인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다. 시간이 지나니 학교에서 강의하던 순간이 계속 떠오른다”며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 재직하던 시절보다 많이 발전해 뿌듯하다. 여생을 학교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달 3만 원씩 3년간...
의과대학 신축을 기원합니다**

의과대학 동문회
의과대학 건축기금 3억 원 기부

2022년 5월, 의과대학 동문회가 '의과대학 건축기금' 3억 원을 기부했다. 의과대학 동문회는 2018년 6월부터 '3-3-1운동'을 추진 중이다. 이송 의과대학 동문회장이 처음 동문회장직을 맡은 2015년부터 기획한 모금 캠페인으로, 졸업 동문 모두가 한 달에 3만 원씩 3년을 모금해 약 백만 원을 모금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약 3백 명의 의과대학 동문이 참여했다.

이송 의과대학 동문회장은 "동문들을 만나보면, 기부에 대한 마음을 가진 동문은 많았다. 기부 계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라며 "의과대학 신축은 경희대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에서 의과대학 신축의 첫 삽이라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약 5천 명의 동문이 합심해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며 의과대학 신축을 기원했다.

**기부의 나비효과로
경희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길**

故 이종민 동문 유족
미래과학관 건축기금 3억 원 기부

참척(慘戚), '참혹하고 슬프다'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부모의 심정을 감히 헤아려야 할 때 사용한다. 참척의 고통을 삼키고, 앞시간 자녀를 기리기 위해 컴퓨터공학과 故 이종민 동문(02학번)의 아버지 이옥규 씨가 경희대를 찾았다. 유족은 자녀가 졸업한 모교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경희대 미래과학관 건축기금으로 3억 원을 기부했다. 경희대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2022년 4월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故 이종민 동문은 재학 중 교환학생과 전공 연수를 다녀오는 등 열정적인 대학 생활을 보낸 후, 굴지의 대기업에 취업한 우수 인재였지만 지난 2019년 불의의 사고로 작고했다. 이옥규 씨는 "경희대 덕분에 자녀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다. 자녀의 추억이 담긴 모교에, 자녀의 이름이 기억되길 희망한다"며 기부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부의 나비효과로 자녀가 졸업한 모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경희 벚꽃길, 함께 걸어요
개교 73주년 기념사업 모금**

참여자 중 100여 명의 일반인클럽 가입
대학발전기금 1억원 기부 약정

대외협력처(서울)가 개교 73주년을 맞아 '경희 벚꽃길 함께 걸어요' 행사를 진행했다. 2022년 4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열린 벚꽃길 행사는 벚꽃길 코스를 완주하고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희가 지향하는 '문화세계'를 생각하며 더 나은 미래로 함께 걷자는 취지를 담았다.

약 3천 5백여 명의 행사 참여자 중 100여 명이 매월 1만 원 기부로 경희 사랑을 실천하는 '라이언클럽'에 참여, 약 1억 원의 기부금이 약정됐다. 이 기금은 코로나19로 취업이 힘들어진 취업준비생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및 가계 곤란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대외협력처(서울)는 "팬데믹 이후 모교를 찾은 동문들과 대학 생활을 즐기는 학생들로 캠퍼스가 활기를 되찾았다"며 "동문들에게 모교에 대한 추억을 환기해 애교심을 되살릴 수 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정문석 동문 뜻 담긴 작은 씨앗,
후배 지키는
큰 나무로 성장하길**

건축공학과 故 정문석 동문 유족 및 동기
'정문석 장학기금' 기부

故 정문석 동문(건축공학과 05학번)은 건축공학과 학생회장을 시작으로 공과대학 부학생회장까지 역임하는 등 모교와 학과에 자부심이 있었다. 故 정문석 동문은 굴지의 건축기업에 취업해 꿈을 펼치던 중 2014년 뇌종양이 발병했고, 지난 2020년 젊은 나이에 작고했다.

故 정문석 동문의 어머니인 주덕자 여사는 고인의 장례를 마친 이후 빈소를 찾아준 건축공학과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소정의 금액을 전달했다. 동기인 고효진 동문은 "故 정문석 동문은 생전에 '언젠가 후배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그 방법을 오랜 기간 고민했다"며 동기들과 후배를 위한 장학기금을 모아 기부하기로 했다. SNS로 홍보해 장학기금 천만 원이 모였고, 2022년 9월 장학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주덕자 여사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돕겠다"며 장학기금 1백만 원을 추가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작은 뜻이 큰 마음으로,
후학 양성에 힘이 되길**

치과대학 교정과 동문회
발전기금 2억 2,400만 원 기부

치과대학 교정과 동문회(이하 경교회)가 경희학원 박영국 사무총장의 정년을 기리고 교정학교실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2억 2,400만 원의 발전기금을 모아 2022년 2월 모교에 전달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에 이어 '치과대학 201호 국시실 헌판식'도 진행됐다. 경교회는 뜻깊은 의미를 담아 후학들의 치의학 교육을 위한 기금 모금을 진행했고, 불과 한 달여 만에 2억 2,400만 원이 모였다. 치과대학 교정학교실에서 전공으로 시작한 박 사무총장은 교수로 정년퇴임 하기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희와 함께했다. 그는 "경교회 강승구 회장을 중심으로 후학들에게 마지막 발자취를 남길 방법을 고심하다 치과대학 교육환경 및 실습기자재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치대 구성원의 작은 뜻이 큰 마음으로 모여 동문들께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경희대 치대가 세계에서 제일 탁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계속 힘을 합쳐 보겠다"고 전했다.



**모교로부터 받은 지원
후배에게 돌려주고파**

강채영 동문(스포츠지도학과 15학번)
체육부 발전기금 기부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강채영 동문이 체육부 발전기금 1천 2백만 원을 기부하며 후배 사랑을 실천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2021년 12월 개최됐다. 이번 기부는 양궁부 후배 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강채영 동문은 "모교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 역시 모교의 지원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교로부터 받은 지원을 후배들과 나누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채영 동문은 지난 2019년에도 체육부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양궁부는 2021년 5월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 여자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강채영 동문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에 부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훈련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더욱 빛나는 성과였다.



**지역 동문회
릴레이 기부**

지역 동문회 후원자 여러분의 소중한 손길이 이어져 경희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릴레이 기부라는 선순환의 고리는 경희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경희는 후원자 여러분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대학다운 미래 대학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분당·수지
동문회**

유명우 동문(경제학과 84학번)의 골프산업학과 누적 장학기금은 6천만 원에 달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22년 5월 체육대학 206호가 '유명우 강의실'로 재탄생했다. 이번 기부는 분당·수지 동문회 릴레이 기부로 이어졌고, 8월에는 방남석 동문(프랑스어학과 84학번)이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3천만 원을 기부 약속했다.

**인천 치과대학
동문회**

한균태 총장이 2022년 8월 인천지역 치과대학 동문회를 방문했다. 한 총장은 이정우 동문(치의학과 90학번)과 김학찬 동문(치의학과 75학번)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그간 꾸준히 기부해 해온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정우 동문은 누적 기부액이 6천 8백만 원, 김학찬 동문은 청원 치과그룹을 통한 누적 기부액이 1억 6천여 만 원에 이른다. 치과대학 발전기금은 물론 장학기금까지 지원해오고 있다. 누적 기부액 1억 원이 넘는 김학찬 동문을 위한 아너스클럽 위촉식도 열렸다. 이날 김동문과 함께 청원치과를 이끄는 송국현 동문(치의학과 79학번), 송창준 동문(치의학과 81학번), 이창규 동문(치의학과 89학번), 홍동희 동문(치의학과 90학번)은 치과대학 글로벌 트러스트 장학기금으로 5천만 원을 쾌척했다.

**제주
동문회**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평화의 섬 순례가 2022년 7월에 7박 8일 동안 학생순례단 및 기획단 90여명과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뤄졌다. 학생순례단은 참가비 전액을 4·3평화재단에 기부했고, 학생들의 순례와 기부소식을 접한 제주동문회는 한균태 총장과 대학 관계자와 함께 완주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고, 순례 과정에서 물품과 식사를 지원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제주동문회는 2020학년도부터 꾸준히 발전기금 기부, 경희후원의집 유치로 대학발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어오고 있다.

기부 뉴스 타임라인



2022.8

스페인어학과
86학번 동문 기업인
익명으로 장학기금
1천만 원 기부



2022.6

테크노경영대학원 총동문회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약정

약학대학 교수진 8명
총 3억 원 기부 약정
아레테클럽 가입



2022.4

경희 만보회
예술·디자인대학 A&D홀
객석 기부 동참

관광대학원 부동산학과 동문회
발전기금 약 1천 6백만 원
및 도서 기부

경영대학 동문
익명으로 장학금 1억 원 기부



2022.1

김진돈 동문
(한의과대학 85학번)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 기금
5천만 원 기부



2021.11

(주)매일유업 김정완 회장
META-KHU 미래대학기금
5천만 원 기부



2022.7

코로나19 극복 기원
평화의 섬 순례 참가단
참가비 전액
4·3평화재단에 기부

오정진 동문
(치과대학 84학번)
치과대학 Global Trust
기금 1억 원 기부



2022.5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동문회
학과 설립 50주년 기념
발전기금 5천만 원 기부

의과대학 동문회
3-3-1 운동으로
의과대학 건축기금 3억 원 기부

‘토닥토닥 든든밥상’
대외협력처(국제)
동문 선배 기부 모아 학식 지원



2022.2

정성민 동문(치과대학 80학번)
아너스클럽 회원 위촉
20여년 간 4억 원 이상 기부

치과대학 17회 동기회
발전기금 5천만 원 기부



2021.12

치과대학 29회 동기회
발전기금 3천 250만 원 기부

김금래 동문(의과대학 93학번)
의과대학 신축기금 3천만 원 기부

현승탁(경영학과 64학번)·
고영수(사학과 65학번) 동문
발전기금 5천만 원 기부 약정

힘내요, 후배님들!
따뜻한 날은 꼭 옵니다.

선배 경희가 후배 경희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조금 더 너를 믿어봐.
너의 세상은
바뀌길 거야!

코로나로 인해 처음 등교하는
후배님들, 설레기도 아쉽기도
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국에도 방역 수칙
잘 지키며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
즐기길 응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희대 공대인들이여.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고 소망하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경희 공대는 세계 최강입니다.
후배님들이 더욱더
발전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 화공과 출신
S전자 팀장님이

다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막막하고 조금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어찌 되든 몇 년 후에
멋진 '나'로 살고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힘들었던
이 시간도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조금 더
너를 믿어봐.
너의 세상은
바뀌길 거야!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 있기보단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나은 자신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대학 생활을 맘껏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대학 생활을 최대한 즐기려고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며,
지금 이 시기를 발판 삼아
사회에서 더 필요로 하는
경희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경희인이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선
자신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려운 시국에 학교 다니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 기부가 후배분들께
자그마한 선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학생식당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밥먹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맛있는 밥 먹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20년 전 학생회관에서
선배들과 밥 먹던 지난 추억이 떠오르
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도
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가는
후배님들을 응원합니다.
마음만은 따뜻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즐길 줄 아는 후배님들 되시길!
카르페디엠!

저는 2010학번의 졸업생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는데
그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 것을 느끼네요.
코로나로 힘든 시간 속에서
대학 생활을 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아요.
오래 기다린 만큼 더 후회 없이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보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네요. 하하;
지금 이 시간은 한 번뿐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후회 없는 대학 생활,
캠퍼스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운연(雲淵)장학금 장학생의 편지

운연(雲淵)장학금(기부자 故 이규종 명예교수 유족)

장학생 약학과 16학번 문○○

김인선 여사님께

안녕하세요, 김인선 여사님.
운연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하나인 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이야기에 앞서, 큰 액수를 학교에 기부하여
저와 같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사님의 인터뷰 내용에서 “걱정 없이 마음껏 배워 학교와
나라를 빛낼 인재로 성장하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말 따스하게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할 때 가장 형편에
어려움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 봐 걱정하는 순간이 많았고,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돈이 필요한 경우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주신 장학금을 통해 이번 학기와 다가올 겨울방학은 조금
넉넉하고 편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는 약학과 학생이고 졸업하면 약사가 될 것입니다.
약사라는 직업은 정말 마음가짐에 따라 큰일을 해낼 수도 있고,
적당한 수준에서 돈을 벌며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세상에 알려진 방대한 지식의 양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졸업 이후에 약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여 제 이름을 알려 학교와 나라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제가 대학생활에서 해내야 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 주신
故 이규종 교수님과 여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장학생의 편지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후원해 주신 기부자님께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2학기에 코로나 생활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입니다.
우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군대 복학 후,
지방에서 학교에 다닐 수 없던 저는 학교 근처 저렴한 방을 구해
입주하였습니다.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부모님의
가게 매출이 대폭 하락하였고 더 이상 손을 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복수전공도 하고 있어 하루하루 공부하며
바쁘게 살고 있던 중 '생활비'라는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과외도 하며 월세 및 생활비에 보탬지만,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어 안타까웠습니다. 집안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음을
알기에 혼자 힘들어하던 중 이렇게 코로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준비하고 있는 졸업논문,
여러 실습에 무리 없이 적극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은 돈이지만 부모님에게도 보태드려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 학생이라는 데에 자부심이 생겼고,
참으로 기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 이제는
제가 후배님들을 도울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생 ○○○ 드림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학생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학교 행사나 동아리 활동은 물론 친구 한 명 사귀는 것이 힘든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 학교에서 코로나19 특별장학생을 선발하였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은
제가 운이 좋아서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특별장학금은 경희대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신 기부자님들의 후원금이 모여 만들어진

장학금이라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병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이를 위해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번에 생활비 부족으로 방세를 내지 못하는 경험까지 해보니
더 어렵고 큰 결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받은 도움을
잊지 않으며, 학업에도 생계 활동에도 성실히 임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부자님은 코로나19 상황 속 숨은 영웅이십니다.
나누고 베풀어 주신 만큼 복 있는 삶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 편지를 읽으시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중국어학과 장학생 ○○○ 드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시기에 장학금을 전달받게 되어 많이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혼자 남겨져 고립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경희 가족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어, 위로와 격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또 다시 내일을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지금처럼 씩씩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전달받은 장학금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교재비와
시험 응시료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든든한 지원을 받은 것 같아
시작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신이 납니다. 다시 한번 도움에 감사드리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훌륭한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생 ○○○ 드림

전병익 동문장학 수혜자 인터뷰

“성장의 기반이 된 장학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전병익 동문장학 수혜자 정준식(환경조경디자인학과 10학번) 동문을 만나다

전병익 동문장학은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전병익 동문(76학번)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장학이다. 전병익 동문은 2006년부터 10여 년간 장학금을 꾸준히 기부했고, 누적 금액은 2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희대학교는 2022년 10월 전 동문을 ‘매그놀리아 아너스 클럽’ 회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참석해 기부자에게 감사의 전한 전병익 동문장학 수혜자 정준식 동문을 만나 소감을 들었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위촉식에 참여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조경사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준식입니다. 저는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전병익 동문장학생으로, 10년 전 감사하게도 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에야 처음으로 선배님을 뵈었습니다. 영광스럽고,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하고 싶습니다.

Q 장학금 수혜 후 10년간의 생활은 어땠나요?

A 장학금을 받기 전에는 학업을 잇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진했었습니다. 장학금 수혜 후, 학업에 조금 더 집중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저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학업에 매진하는 시간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이 경험이 바탕이 되어 지금까지도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전병익 선배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전병익 장학금은 10년 전 학생인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늘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시간이 이만큼 지나고 나서야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촉식을 통해 드디어 선배님을 뵈었습니다. 이 자리는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선배님의 후배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또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훌륭한 경희의 후배들이 이러한 자리에 계속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후배들을 응원해주시고, 앞날을 지지해주는 전병익 선배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재학생 학식 지원

캠퍼스 일상 회복 위한 “선배들의 후배 학식 기부” 행사 개최



개교 73주년 기념 동문 기부 모아 학식 기부 토닥토닥 든든밥상 “따뜻한 밥 한끼로 선후배의 정 나눠”

최근 대면 활동과 수업이 조금씩 증가하며 학생들이 삼삼오오 학생 식당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대외협력처(국제)가 개교 73주년을 맞아 구성원과 그 의미를 나누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를 겪었던 캠퍼스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2022년 5월 17일(화) 국제캠퍼스 학생회관에서 학식 지원 이벤트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2021년 진행된 ‘경희후배사랑 기부 캠페인’의 일환이다. 2021년 경희대는 동문, 후원의 집 기부금 약 5억 원을 모아 재학생 2천 명에 코로나 특별 장학금을 지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동문이 코로나19로 지친 후배들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제주총동문회, 환경학 및 환경공학, 중국어학과, 유전생명공학과, 화학공학과 동문회 등 단체 참여가 이어지며 90여 명의 동문이 학식 지원에 참여했고, 이벤트에 참여한 재학생 1,400여 명은 동문 기부금으로 100원의 학식과 개교 73주년 기념 축하 쿠키를 먹을 수 있었다.

학생 식당 곳곳에는 행사 포토존과 동문회의 응원이 담긴 배너가 전시되었고, 참가한 학생들의 포토존 감사 이벤트를 통해 선후배의 정을 SNS상에서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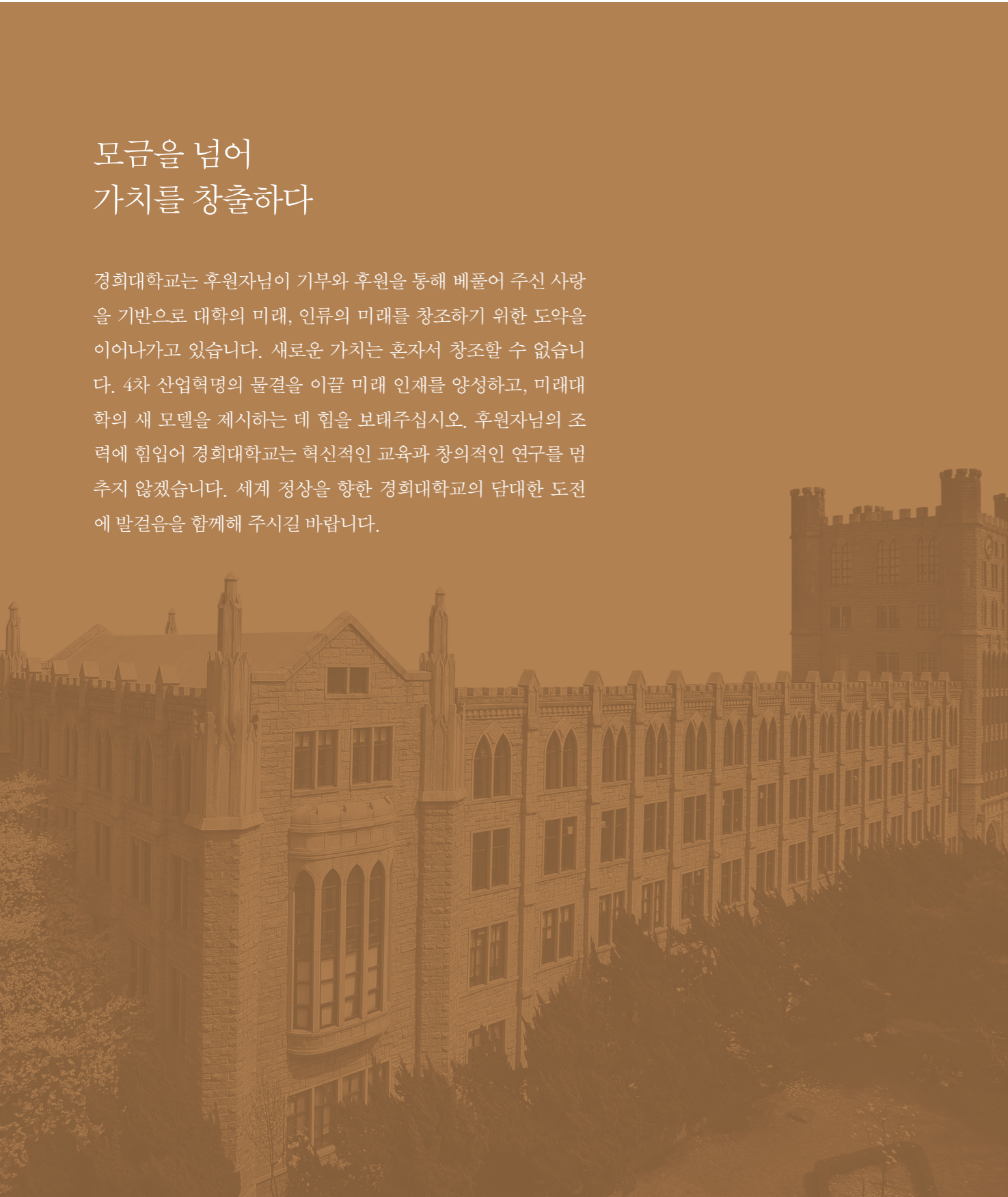
힘내라 경희 후배, 선배가 쓴다! 쿠쿱(KHU COOK) 가보자GO 개최

대외협력처(서울)이 2022년 11월 30일(수) 청운관 학생식당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이태원 참사 등으로 상실감을 느끼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특별한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그룹사운드 ‘잔나비’의 최정훈 동문(경영학과 11학번)의 축제출연료 기부금을 활용했다. 학생들에게 풍성한 식사와 함께 마카롱 등 디저트를 제공했다. 한균태 총장과 교무위원들의 진심어린 응원으로 선배가 후배를 응원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포토존에서 쿠쿱 풍선인형과 최정훈 동문의 입간판 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선후배간의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고 추후 자신들도 후배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선배가 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금을 넘어 가치를 창출하다

경희대학교는 후원자님이 기부와 후원을 통해 베푸어 주신 사랑을 기반으로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도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는 혼자서 창조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이끄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대학의 새 모델을 제시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옵시오. 후원자님의 조력에 힘입어 경희대학교는 혁신적인 교육과 창의적인 연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세계 정상을 향한 경희대학교의 담대한 도전에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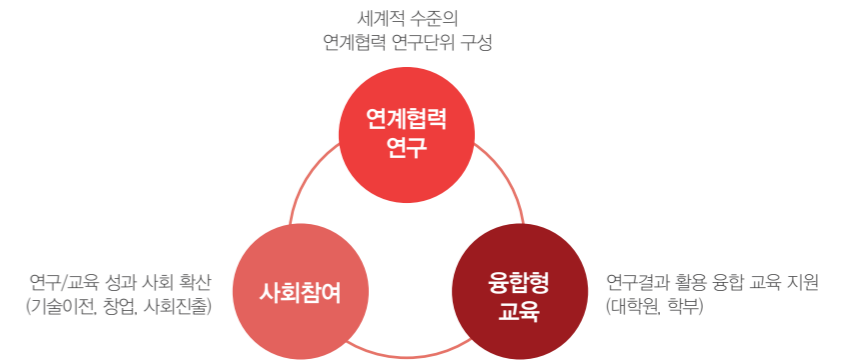
KH-미래과학관 건축 기금

‘미래과학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해온 경희가 미래과학관을 건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 단위를 창출하는 연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KH-미래과학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단위 창출을 위해 교육 및 연구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연계협력 연구, 사회참여, 융합형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미래산업을 선도할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인공지능, 로봇, 환경, 안전, 우주, 신소재, 메타버스 등 미래과학관에서 산출될 연구성과를 토대로 관련 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미래대학의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연구, 교육, 사회 참여 선순환



미래과학관 사업 개요

주요시설 (안)	지상4층	미래과학클러스터(클린룸), RIC
	지상3층	미래환경연구소, 미래과학클러스터, 반도체/전자그룹, RIC
	지상2층	미래환경연구소, 미래과학클러스터, LINC+입주업체, 휴게공간
	지상1층	로비, 천체투영관, 공동기기원, 글로벌과학관 지원시설, 메타버스 스튜디오, 입주업체
	지하1층	천체투영관, 공동기기원, 전기·기계실
기부예우	기부금액에 따른 공간(건물, 층별, 실별, 기자재별 네이밍)	



META-KHU 미래대학 기금

새로운 미래대학 교육 플랫폼 About META-KHU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로 확장된 경희대학교’라는 의미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경희대, 경희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대학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미래사회는 메타버스(가상현실)의 시대,

미래세대의 생활과 문화의 기반을 여러 차원의 가상현실을 뛰어넘으며 펼쳐지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경희대학교는 메타버스 교육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여 경희대학의 가치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올바른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비상하려고 합니다.

META-KHU 캠퍼스 조성

물리적 한계와 현실의 제한이 없고 상상의 실현과 가능성이 무한한 캠퍼스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교생 메타버스 하드웨어(VR기기) 제공	메타버스 강의실 구축 및 교육 콘텐츠 개발	META-KHU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 운영	후원 기업 홍보관
------------------------	-------------------------	---------------------------	-----------

- 2021년 AI 신성장 동력학과로 빅데이터응용학과, 인공지능학과, 스마트팜학과 신설
- META-KHU 캠퍼스 강의실에서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실현, 팀 프로젝트, 토론, 협업 등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 META-KHU 캠퍼스에서 전 세계 우수 대학 및 석학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 META-KHU 캠퍼스에서 경희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으로 경희의 가치를 구현합니다
- META-KHU 캠퍼스에서 미래변화를 전망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감사 예우 프로그램

● 공통 예우

구분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기부식	총장 주재	아너스클럽 위촉 및 VIP 예우 제공 (맞춤형 진료 서비스, 건강검진권 증정, 의료비 감면 등)
감사선물	메타버스용 VR기기 제공 META-KHU 웰컴 Kit 증정	
아바타	기부자 캐릭터 아바타 제공	
명절선물	연 2회(설, 추석)	
행사 초청	META-KHU 내 문화행사 시 초청 (콘서트, 전시회, 인문학 특강 등 가족 포함)	

● META-KHU 예우

구분	내용	5천만원 이상	1억원이상 (A)	1억원이상 (B)	2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광고/홍보 예우	메타버스용 VR(오쿨러스 퀘스트) 기기상 기업명(기부자명) 명시	○	○		○	○
	META-KHU 로딩 화면에 기업 광고 제공 (10초 내외)		○ (1년)		○ (2년)	○ (2년)
	META-KHU 내 후원기업 전용 홍보관 기본 플랫폼 제공 및 홍보			○ (1년)	○ (1년)	○ (2년)
네이밍 예우	온라인	○ (1년)	○ (3년)	○ (3년)	○ (5년)	○ (10년)
	온/오프라인		○ (중 20년)	○ (중 20년)	○ (대 20년)	○ (대 30년)
	부대시설명 (실험실, 독서실, 컴퓨터실 등, 휴게실 등)	○ (15년)	○ (20년)	○ (20년)	○ (25년)	○ (30년)

※ 예우 내용 선택 가능, 기업 광고/홍보 메이킹 이후 교체 비용은 기업이 추가 부담

경희라이언 일만인클럽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1·1·1 법칙, 1달에 1억을 만드는 1만 인의 기적

경희를 상징하는 동물인 사자처럼 거침없이 앞을 향해 전진하는 역동적인 경희인의 기부 모임입니다. 학술과 전통을 계승하는 21세기 미래대학을 위해 경희대학교에 매월 1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자 일만 명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1만 명이 만드는 1만 모금의 법칙

“1만 명 x 1만 원 = 1억”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인데요. 운동선수의 경우 경기에서 적을 베는 승부의 시간은 짧지만 1천 일, 1만 일을 이 순간만을 위해 노력한 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이지만 1만 모금의 법칙은 경희를 사랑하는 일만 명의 화합을 일구어내는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1만 원. 누군가에게는 하루 식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영화 관람비로 지출되는 소액 비용입니다.
하지만 1만 원을 1만 명이 1달 동안 기부한다면
경희를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희의 미래는 인류의 미래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교의 발전과 경희의 도전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예우

가입 선물

경희 와인

※ 회원 가입자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가입 선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발송

최신 학교 소식과 모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라이언 일만인클럽 데이 초청

가족과 함께하는 모교 초청 행사에 초대



연말 대학 달력 발송



기부금 영수증 발행



설립자 글



“사랑하는 경희인 여러분”

우리 졸업생들은 재주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주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만 성공하지만 노력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경희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강인한 의지와 노력으로 자랑스러운 경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희학원 설립자 故 미원(美原) 조영식 박사

아름다운 약속기금

신탁 재산을 기부하는 유연대용 신탁

명예로운 나눔으로 미래세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빛나는 이름은 경희의 자랑스러운 남고,
경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열어갑니다.

아름다운 약속기금 (유연대용신탁)이란?

평생 일구어 오신 재산과 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경희가 이어갑니다.
재정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나눔의 방법과 맞춤형 기부 설계를 제공합니다.
신탁 기부를 통해 당신의 아름다운 인생 스토리를 남겨주세요.
생전에 경희대학교 등 희망하시는 곳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여 위탁자 사망 시 신탁 재산을 기부하는 유연대용신탁입니다.

기부 방법

유연대용신탁은 신탁계약의 형태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신탁을 통해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재산 출연 시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한 상속세 면제가 가능합니다.(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부 시)

- 부동산 기부 : 상가, 주택, 토지, 전세금, 임대 수익금 등
- 증권 기부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펀드 등
- 보험 기부 : 보장성보험금, 저축성보험금, 손해보험금
- 기타 증여

※ 법률, 세무, 신탁 등 기부 전문가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 프로세스



※ 이 프로그램은 경희대학교-하나은행 간 업무협약 체결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부자님이 원하는 대로, 유연한 맞춤 관리와 기부 설계가 가능합니다.

감사예우 프로그램

경희발전을 위한 기부자님의 따뜻한 사랑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품격있는 예우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기부금 전달식 개최
- 명예의 전당 헌정
- 다양한 문화 행사 초대
- 감사선물, 학교시설 이용 편의 제공
- 경희의료기관 진료 편의 서비스 제공(건강검진 20% 할인 등)

아름다운 약속기금은

기부자의 삶과 철학이 미래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원하시는 곳에 사용됩니다

- 기부자 맞춤형 기금설립 및 운영
- 대학의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 교육, 연구, 사회공헌 기금
-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경희 인재 양성 기금

Story

故 김복순 여사

“나라가 잘되려면 청년이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서울역 앞에서 우동 장사를 하며 늘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신 '우동 할머니' 故 김복순 여사는 평생 힘들게 모아온 전 재산을 경희대학에 기부, 대학은 할머니의 이름을 따 '김복순 장학기금'을 마련해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경희의료원에서 치료받은 것을 계기로 사후 대학에 시신까지 기부하셨습니다.

김인선 여사(故 이규종 명예교수 부인)

“힘든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걱정 없이 마음껏 배워 학교와 나라를 빛낼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김인선 여사는 경희대 발전에 평생을 향한 부군의 의지를 되새기며 경희대 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양상을 위한 장학금 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장학기금은 고 이규종 명예교수의 아호를 따 '운연(雲淵) 장학기금'으로 명명하여 기부자의 바람을 실천하고, 학교발전 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희 동문 기업

경희 동문 기업(병원)을 모십니다

경희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동문 기업이 되어 주십시오.
 경희 동문 기업은 커뮤니티를 형성해
 경희와 동문 기업의 동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더 나은 세계, 더 큰 미래’를 향해 경희와 동문 기업이 함께합니다.

경희대학교는 국내외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동문 기업과 대표 동문을 모시고 경희 동문 기업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경희 동문 기업 커뮤니티는 돈독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도전과 혁신 속에서 경희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경희 동문 기업인의 성장과 발전의 중심점이 될 것입니다.

KHU-Entrepreneur Community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는
자랑스러운 경희 동문 기업

참여대상

경희대학교 동문 기업인, 경희대학교 대표 동문(ex. 변호사, 회계사, 외교관, CEO 등)

KEC 리더십 프로그램 및 예우

경희 동문 기업에 가입하시면 경희만의 KHU-Entrepreneur Community(KEC) 리더십 프로그램과 기부 예우를 제공합니다.

● KEC 리더십 프로그램

문화 행사	네트워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찬 및 만찬 초청 총장 주재 친선 골프대회 대외협력처 주관 행사에 VIP 특별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동종 및 이종 업계 모임, 교류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희사이버대학교 수업료 할인 글로벌미래교육원, 국제교육원 프로그램 할인

● 감사 예우

구분	A타입 (50계좌)	B타입 (30계좌)	C타입 (10계좌)	
공통 예우	명패	경희 동문 기업 명패 제공		
	현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동문기업 '명예의 전당' 현정		
	경조	근조기 및 경하기 지원		
	연말	총장 서신, 연하장 및 달력, 대학 홍보물 발송		
	기부식·홍보	기부식 개최·기업 홍보		
추가 예우	예우품	경희의료원 공진단(10환) 경희 와인 웰컴 키트	경희의료원 공진단 (5환) 경희 와인 웰컴 키트	경희 와인 웰컴 키트
	의료 예우	진료비 30% 감면 기본검진권 2매	진료비 10% 감면	진료비 10% 감면
	주차권	평생무료 주차권	-	-

※ 5천만 원 이상 기부 기업은 아너스클럽에 준하는 품격있는 예우를 제공해 드립니다.
 ※ 진료비 감면은 발전기금 납부 완료 후 적용됩니다.

가입방법

- 약정 후 발전기금 납부(1계좌 100만 원)
- 기부방식 : 일시불 또는 분납(최대 3년) 가능

**경희 동문 기업
홍보**

- 동문 기업 가입 시 기부식(약정식 포함) 개최, 교내외 기사 게재를 통한 기업 홍보 진행
-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 운영 : 동문 기업 소개, 소식 안내
- 경희 구성원 및 동문 대상 홍보 : 동문 기업 탐방, 영상 제작
- 경희 동문 기업 이용 활성화 이벤트 개최

**법정 기부금
세제 혜택 안내**

출연 방법에 따른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금액 100% 세액 공제 인정 대상 금액임
- 당해 연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개인 기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내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초과분은 기부금의 30% 세액 공제)
법인 기부	법인세법에 따라 연간 이익 금액의 50% 범위 내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희 동문 기업
가입 선물**



경희 동문 기업 명패



경희의료원 공진단



웰컴 키트



경희 와인

**미원(美源) 사업
기금**

메시지, 미원의 삶을 담다

미원의 사상과 철학, 생애를 기리는 기념사업을 통해 경희학원과 지역사회, 국가와 지구 사회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적극 주선하면서 '아름답고 풍요롭고 보람 있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미원기념사업회
설립 목적**

미원 조영식 박사 기념사업회는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미원 조영식 박사의 사상과 철학, 유업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미원기념사업 기초

미원기념사업의 출발점은 미원사상의 원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미원을 기리는 모든 사업은 미원사상의 궁극적 도달점인 '문화세계'로 수렴될 것입니다. 미원기념사업은 학문과 실천이 만나는 인간의 길, 평화의 길에서 '문화세계'의 실현 가능성을 찾습니다. 미원 기념사업은 더 나은 인류사회를 열망하는 국내외 대학과 시민, 단체, 정부, 기업들이 함께 뜻을 모으는 공동의 장(場) 역할을 합니다. 경희학원 설립자 조영식 박사님의 숭고한 뜻을 미래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한 기억이 영원토록 간직될 수 있도록 "미원기념사업"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원 기념관 건축
설립자 추모관**

- 온/오프라인 설립자 추모관 구축
- 설립자 추모 동상, 영상 제작



**평화학술활동
지원**

- 평화·민주주의·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연구와 실천 사업 지원
- 설립자 저서 재출간
- 미래세대 및 세계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목련화' 음반 제작
- 경희 70년사 편찬, 예술공연·전시 지원



기부자 감사 예우

기부금 전달식 개최 (5천만원 이상 기부)	경희의료기관 진료 편의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권 제공 (5천만원 이상 기부)
명예의 전당 Donor's Wall 헌정 및 행사 초청	다양한 문화행사 초대	감사 선물 및 맞춤형 예우

미원(美源) 사업 기금



메시지, 미원의 삶을 담다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
서거 10주기 추모 전시회

전시 기간 2022년 9월 ~ ※ 세부 기간은 경희기록관 문의

전시 장소 **서울캠퍼스** 중앙박물관 중앙홀 (중앙도서관 4층)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로비

주최 학교법인 경희학원 주관 경희기록관(02-961-0759)



2022년은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가 서거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921년에 태어나 2012년에 타계한 미원 조영식 박사는 전쟁과 평화, 성장과 소외, 희망과 절망이 뒤엉킨 극단의 시대를 살았다. 극단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미원은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했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절망을 목도하면서도 인류의 밝은 미래를 꿈꾸었고, 그 꿈은 저서 『문화세계의 창조』(1951)에서 구체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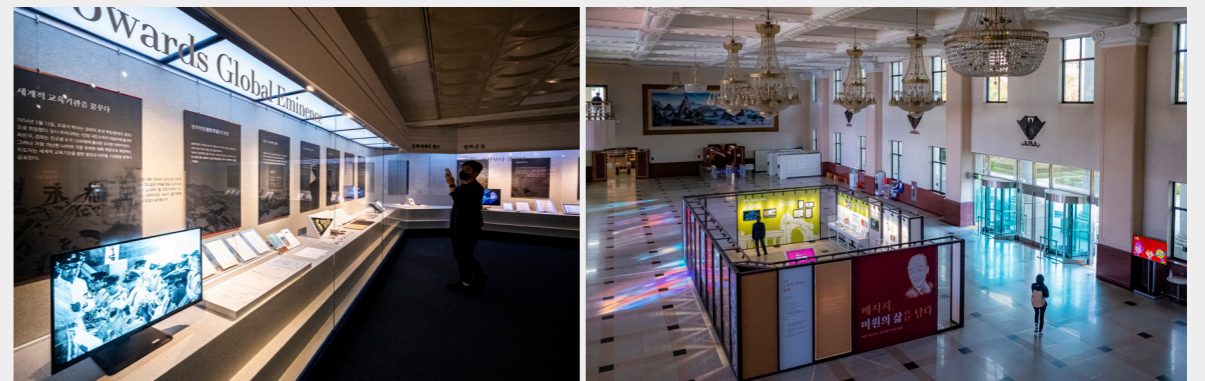
미원은 자신의 비전과 기획을 실천에 옮겼다. 경희학원을 설립해 학술·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지구적 평화운동에 헌신한 것은 '문화세계의 창조'를 이 땅 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었다.

2022년, 미원 서거 10주기를 맞은 지금도 인류는 여전히 그 꿈을 갈구한다. 전환문명과 지구환경의 위기 앞에 놓인 우리에게 70여 년 전 미원이 주창한 '문화세계의 창조'는 아직도 헤치고 나아가야 할 미래다. 미원 조영식 박사가 남기신 메시지를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시 되새겨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원 조영식 박사는 수많은 메시지를 남기셨다. 메시지들은 그가 집필한 책, 연설문, 인터뷰, 동영상, 음성자료, 시집과 음악 등 다양한 매체에 담겨 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미원의 사상을 이해하는 통로이며, 그의 활동과 업적이 기록된 보고서이자, 그의 꿈과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창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약 120여 점의 기록물이 공개된다. 특히 1951년에 미원이 저술한 『문화세계의 창조』 초판본, 1954년 조영식 학장 취임식 육성 연설, 1964년에 경희의 미래를 그리며 제작한 「미래메시지」, 1981년 제36차 UN총회에서 통과된 '세계평화의 날' 제정 문건, 1993년 유네스코평화교육상, 경희학원 각급 기관들의 설립 인가증 등은 실물로는 처음 일반에게 공개되는 경희의 귀중한 유산들이다.

관람자들은 미원의 말과 글이 담긴 메시지 및 관련 기록물들을 보며 경희의 교육이념, 경희학원의 성장과 발전, 국제평화운동의 방향과 의미, 미원의 사상 및 후학들에 대한 당부 등을 생생하게 느낄 것이다. 한편, 미원의 유산을 계승하여 시대에 맞게 발전, 승화시키려는 경희의 노력 역시 이번 전시회에 담았다.



Giver 기부자 명단

2021. 3. 1~ 2022. 2. 28

1억 원 이상

(재)오투기함태호재단(이사장 함영준)	메가스터디교육(주)(대표 손성은)
(주)덴티움(회장 정성민, 치의학80)	서정섭(동신관유리공업(주) 회장, 법률학58)
(주)한국씨티은행(대표 유명순)	아반토퍼포먼스머티리얼즈코리아(유)(대표 이상규)
KD운송그룹(사장 허상준, 법학82)	이용익(주)신흥 대표)
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정학수)	지구환경연구소(대표 백형환)
누베베한의원 원외탕전실(원장 임영우, 임상한의학13)	

5천만 원 이상

(주)디브이파트너즈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
Yusuke Yamauchi(교수)	우덕재단(이사장 허정섭)
김완길((주)미래씨엠티 대표, 화학공학85)	종근당고촌재단(이사장 김두현)
김진돈(운제당한의원 원장, 한의학85)	최연식(교수)
롯데장학재단(이사장 허성관)	후문옥(교수)
신라문화장학재단(이사장 박준형)	

3천만 원 이상

(사)대한민국배구협회(회장 오한남)	박주석(교수)
(재)신흥연승기술재단(이사장 조규성)	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 노성태)
(재)현대차정몽구재단(이사장 권오규)	손문기(교수)
경희 럭비 OB 동문회	오스팀임플란트(주)(대표 엄태관)
김금래(네이처영상의학과의원 원장, 의학93)	웅남고속(주)(대표 권성욱)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	제이에이알시스템즈(주)(대표 주형진, 산업경영공학91)
메르덴주니어치과(원장 황정환, 치의학89)	치과대학 동창회(정진 외)

1천만 원 이상

(재)DB김준기문화재단	김호철	이근혁
(재)가송재단	김훈식	이금호
(재)가헌신도재단	김희균치과	이라인미소치과의원
(재)상록	라인서	이상만
(재)용운장학재단	라임치과교정과 치과의원	이송
(재)현송교육문화재단	리치개발	이용택
(주)다우기술	마인즈그라운드(주)	이정숙
(주)매일유업	매일홀딩스(주)	이탑치과의원
(주)서플러스글로벌	메가엠디(주)	이혜승의원
(주)썬디디에스	문주장학재단	일주학술문화재단
(주)에코니티	박권욱	임동순
(주)웅니허브	박승준	임헌진
(주)와이케이테크	박영국	정병일
(주)제테마	박평원	조현주
(주)큐제네틱스	사회복지법인미래에셋박현주재단	주한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주)트레이드파트너스	삼성복지재단	최재영
(주)퍼슨	삼성장학회	태윤희
(주)프리미어플랜	생명보험협회	하동림한의원
(주)한라산	서영호	하이트진로홀딩스(주)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장학재단	하태수
Airbnb Ireland UC	성남시장학회	한국방정환재단
KHIF	센트럴청원치과의원	한국장학재단
KPX문화재단	엘지디스플레이(주)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Rothwill 준치과	오충영	한국커피로스터연합 CRAK
강동모커리한방병원	와이비미디어	해성문화재단
강채영	웰치과의원	형애장학회
강한규	위강한의원	홍성진
광주시민장학회	유공조	홍성표내과의원
구원장학재단	유명우	홍진표치과의원
김남식	유재환	홍충선
김성기	유한재단	홍한재단
김중배	이경태	

5백만 원 이상

(사)대한핸드볼협회	(주)엑시스인베스트먼트	권도형
(재)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주)와이넬	권오병
(재)대은강원석장학재단	(주)이타임테크	김경욱
(재)송천재단	A+하용찬성형외과	김상영
(재)윤병강장학회	K치과병원	김선국
(재)진암장학재단	강남푸른정형외과의원	김승주
(재)한독제석재단	강성구	김영주
(재)한재장학재단	곽재성	김해영
(주)성보물산	국민은행 신매단지점	김현우내과의원
(주)씨에스냉장	국민은행 이문동지점	김효수

노상석	심팩최진식장학재단	자연미소치과
늘푸른의원	안정선	장옥수
동의보감한의원	엘트웰민초장학재단	장은지
디와이피엔에프(주)	약대77동기회	장재순
명미나	약대87동기회	정수장학재단
미래인재육성재단	양진장학재단	조창희
바른이치과	얼굴에 미소치과의원	주덕자
박기호	에스지에이(주)	청호불교문화원
박석종	에스지에이솔루션즈(주)	최재관
박성민	오세윤	최종주
보이스아이(주)	올치과	최준영
분치과의원(교정과)	용인시인재육성재단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부약국	우석문화재단	한균태
비엘클리 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우영기획	현대치과의원
사학과 민주동문회	유기대	현영석
성옥문화재단	윤여준	현익준
세아해임학술장학	이건내과	협성문화재단
송병서	이덕재	형제전기(주)
송파재단	이명호	홍산장학재단
수문사	이은정	황유시

3백만 원 이상

(재)선현	미래의동반자재단	이동훈
(재)송화재단	미소자인교정치과	이민영장학회
(재)자생의료재단	바른이디자인치과교정과과의원	이원웅
(재)제봉민병욱장학재단	바른이만들기치과교정과치과의원	이주석
(재)한석경 함흥장학회	바른치과의원	이지아
(주)래티튜드	박규창	이충기
(주)와이엠티	박순기	이현건
(주)원앤원솔루션	박은정	이화형
(주)주원	백계장학회(김중호)	이희돈
Ramchandra Balaji Pote	삼정회계법인 경희대학교 동문회	인천서부소방서
W스타일 치과의원	서민철	장애경
강지천	송정길내과의원	장준혁
경기영화학교연합	신애범치과의원	전완주
경방육영회	심향	정산장학재단
구현주	싸이스트(주)	정용현
권영호	알프스치과	조인숙
권장혁	에스교정과치과의원	청아출판사
김기현	오름치과의원	최지윤 Art Collection
김선주	오성장학재단	큐프라임인하치과
김안과의원	원일전선판매(주)	페퍼저축은행
김윤희	위드팜대학약국	하나금융나눔재단
대상문화재단	윤태영	하림장학재단
대한전기협회장학회	의송장학회	하상수(경로치과의원)
더라인치과교정과치과의원	이경민	허의남

1백만 원 이상

(재)금샘문화재단	김도연	김현혜	박경규
(재)안산인재육성재단	김동연	김혜경	박경훈
(재)준제장학회	김동화	김혜정	박근형
(주)기산바이오텍	김미경	김흥모	박서우
(주)서초교통	김민성치과	나라치과	박선희
(주)태영건설	김민채	남동우	박선희
(주)현대그린푸드	김상훈	남상욱	박선희
J스타일치과	김성남	남수원웰치과	박성원치과
THE조은치과의원	김수정	남혜영	박성화
가치러한 치과교정과 의원	김순호	노진아	박승민
강남루덴플러스치과	김승준	뉴메디슨약국	박유경
강동호	김연옥	뉴욕바른라인치과의원	박정미
강문태	김연정	다나카유키야	박정훈
강미선	김연하	닥터유부부치과	박주홍
강북소방서(의용소방대)	김영동	대명한의원	박치과의원
강세찬	김영미	더바른이치과교정치과의원	박태준
강승구	김영석	더원치과교정과의원	박환일
강영미	김영호	도서출판 현문사	박희정
강윤구	김용락	디자인스타치과의원	반건호
강인애	김윤일	로스웰준교정과치과	반트치과교정과치과의원
강호플러스치과	김윤희치과의원	로웰치과	배경원
경현	김은영	루시나산부인과의원	백동진한의원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김재명	류명희	백두산약국
경희의료원 간호사회	김재호	매원장학재단	백미연
계룡건설산업(주)	김정부	명이비인후과의원	백종은치과의원
고수진	김정애	모마치과	변병대
고윤o라인치과	김정은	목동웰치과	보람치과
고재영	김정화	문석윤	복음장학회
고재윤	김종선	문지희	부부치과의원
고현영	김주훈	미래꿈나무치과	브레이크치과
골드치과	김주희	미래미소치과	사과나무치과
과천시애항장학회	김준형	미소가밝은치과의원	사는기쁨치과
구리미소치과의원	김중기	미소드림치과	사랑담은치과
구영준	김지연	미소를 주는 치과의원	사회복지법인건아재단
권준학	김지은	미소를만드는치과	삼성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권지혜	김찬기	미소봄치과교정과의원	서남영
권혁상	김창주	미안미이희정치과	서동철
쿨치과(교정과)	김태경	미치과교정과치과의원	서동휘
그랑치과 교정과 치과의원	김태완	민병일	서병관
김강민	김태우	민성욱	서울고른이치과
김경순	김태환	바른치과교정과치과의원	서울더플랜치과의원
김경아	김학민	바르다치과교정과치과의원	서울미소치과의원
김경연	김현숙	바른내일치과교정과치과의원	서울시 한약사회
김경옥	김현우	바른이 치과	서재승
김금자	김현유	바른이바른얼굴 치과교정과	서충욱
김기방	김현진	바른이치과교정과의원	석소현

성진피엠(주)	예손치과	이상현	장세훈치과
성호준	예스치과의원	이상화	장소영
세코틀스코리아(주)	예온치과의원	이선이	장순기
센트럴치과의원	예울치과의원	이성재	장윤희
손신영	예이랑 치과교정과 의원	이수연	장진웅
손앤유(주)	예이랑치과의원	이수한의원	전익기
손영숙	오동재	이수현	전인재
손영주	오문영	이승우	전종득
손우연	오성환	이승훈	전현민
손정곤	오승욱	이아경	정극모
송병기	오승진	이아름	정극모치과
송예은	오승훈치과의원	이양수	정기홍
송재규	오영오	이영남	정낙호
송정근	오우식	이영선	정도민
송치과의원	오재원	이영주	정민형
송파소방서	오진환	이예슬	정소진
송호창	와인·워터·티마스터소물리에	이윤정	정연희
송희태	전문가과정 35기 일동	이정국	정우진
수인치과	우리들성심치과의원	이정식	정윤희
수인치과의원	우정택	이정아	정자용
스마일민교정치과의원	원규연	이정희	정종혁
스타28치과	원스치과교정과치과의원	이제승	정지호
시그니처치과교정과 치과의원	원필준치과교정과치과의원	이종하	정진봉
시크릿 치과의원	위정국	이종훈	정창안
신기순	유미경	이준영	정현주
신대방가정의학과의원	유순지	이준일	정형오
신성희	유신정	이즈치과의원	정환욱
신승윤	유어스마일치과의원	이즈치과의원	정효선
신승일	유옥재	이지민	제유진
신연식	유정철	이지원치과교정과치과의원	제일바른치과교정과치과의원
신응범	유하균치과	이창준	조민우
신혜숙	유호빈	이태호치과의원	조세형
아름다운이치과의원	윤경숙	이튼치과	조승제
아이디마곡치과교정과치과의원	윤경식	이현석	조영하
안경석	윤기선	이현숙	조우치과
안성진	윤덕상치과의원	이현정	조은수치과의원
안승억	윤석찬	이형래	조종만
안양만안새마을금고장학회	윤성한	이효설	조진현
안현준	윤소영	인송문화재단	조현용
양동일	윤은경	인천공단소방서	종각치과
양순미	윤태길	일주어터	주) 이디아이앤씨
양치과	윤희삼	임재범치과	주)지역메디칼
엘지약국	이경원	임현동	주상은
여디디아치과의원	이명상	장경은	주서령
연세더바른치과의원	이미연	장규태	주성재
연합뉴스	이민아	장득환	주수만
염상국	이바른치과	장백기	주치과교정치과
영풍문화재단	이상목	장석원	지오치과

지종간	최연석 치과의원	한부현	홍선생치과교정과치과의원
진영호	최우진	한솔치과	홍승재
진원TPL로지스	최재우	한용환	홍일기
진환	최정욱	한정원	홍진모
차미호	최진혁	함윤	화인치과
차성민	치과대학 17기 동기회	함정식	황선달치과
참조은플란트치과	치과대학29기	해남군청	황수현
창원미치과의원(교정과)	케이에이치자산운용	해맑은 치과	황원주
채지은	클리니치과의원	허브치과	황은영
천안우리병원	탁은정	허양희	황철수
천훈	평창소방서_의용소방대	허영범	황희정
첫사랑니치과	하상수	허이선	
최병식	한광령	현대치과	
최승모 치과의원	한명주	형남진장학재단	

1백만 원 미만

강형규	곽난새	권현숙	김권일	김동구	김병재	김소현	김영순	김욱진	김정희	
가우림	강호정	곽민욱	권혜리	김귀애	김동규	김병찬	김소훈	김영주	김운성	김제열
강경숙	강호정	곽소영	권희진	김규리	김동수	김병택	김수림	김영진	김운성	김제은
강경태	강효백	곽영아	금호섭	김규영	김동영	김병학	김수민	김영진	김윤희	김제이
강남석	강희수	곽혜심	기준영	김규은	김동욱	김봉구	김수민	김영철	김원희	김종규
강덕현	강희원	구교섭	길재호	김금녀	김동우	김봉진	김수산나	김영태	김유리	김종민
강명호	경나영	구다연	길주형	김기국	김동주	김분순	김수완	김예원	김유진	김종범
강병걸	경충호	구민숙	길진영	김기민	김동준	김상섭	김수윤	김예원	김유진	김종복
강병연	고가현	구지욱	김가연	김기자	김동찬	김상욱	김수이	김예지	김윤범	김종선
강서진	고광덕	구진희	김갑성	김기태	김동현	김상이	김수일	김예화	김윤선	김종수
강석희	고동현	구태영	김강일	김기택	김동환	김상준	김수현	김예훈	김윤조	김종우
강성원	고두현	구태운	김건식	김기표	김동훈	김상한	김수형	김옥경	김윤지	김종인
강성은	고민욱	구효전	김건희	김기형	김명옥	김상훈	김순자	김옥숙	김윤화	김종한
강성호	고석근	권기덕	김경민	김낙우	김무균	김서영	김승림	김옥지	김은영	김종호
강수일	고선미	권기하	김경선	김남궁	김무호	김선광	김승연	김용걸	김은정	김종훈
강수현	고성규	권동현	김경수	김남일	김문식	김선영	김승욱	김용겸	김은정	김주영
강애솔	고성우	권범석	김경수	김남중	김미선	김선희	김승주	김용권	김은정	김주철
강영길	고수원	권성인	김경수	김남희	김미정	김설휘	김승준	김용민	김은희	김주희
강예슬	고윤서	권수진	김경운	김다은	김미혜	김성래	김신일	김용범	김인영	김준영
강은석	고정환	권영균	김경일	김다현	김미혜	김성룡	김아림	김용상	김일동	김준현
강은정	고진석	권영보	김경진	김다혜	김민규	김성민	김양석	김용석	김재경	김준현
강은주	고창남	권오희	김경태	김대기	김민서	김성수	김연섭	김용수	김재형	김준희
강은진	고현욱	권용모	김경표	김덕기	김민영	김성수	김연재	김용은	김재호	김지석
강인규	고효진	권용수	김경환	김도균	김민용	김성아	김연종	김용평	김정미	김지수
강지숙	고희전	권은정	김관혁	김도균	김민정	김성우	김연진	김용호	김정민	김지연
강진선	곡가예	권일근	김광수	김도완	김민주	김성현	김영근	김용화	김정산	김지영
강진화	공우석	권재열	김광우	김도는	김밝은	김성환	김영덕	김우성	김정숙	김지영
강태진	공재명	권정무	김광재	김도현	김범식	김성훈	김영란	김우순	김정호	김지영
강필정	공천석	권준석	김광표	김도현	김범지	김소명	김영미	김우식	김정희	김지원
강하은	공해린	권태연	김국형	김동건	김병우	김소명	김영숙	김욱재	김정희	김지유

김지일	김호석	류금자	박명원	박영지	박해순	서경아	손장원	신지혜	여홍철	유승록
김지홍	김호영	류기덕	박무성	박영후	박해일	서덕순	손정은	신채영	연혜숙	유승우
김지환	김호인	류문주	박문성	박예진	박현	서미희	손정현	신화순	염현희	유연백
김지환	김화용	류미용	박미나	박용섭	박현숙	서민지	손종근	신화정	오나선	유영춘
김지훈	김화정	류재인	박미르	박우현	박현정	서보학	손종역	심범상	오나희	유예림
김진교	김화진	류재준	박미애	박원호	박혜영	서상원	손진수	심성원	오동희	유용철
김진상	김효은	류정현	박민선	박유슬	박홍근	서소정	손취성	심우영	오민지	유웅선
김진섭	김효종	류제국	박민정	박윤근	박환희	서신재	손희원	심인섭	오선민	유원준
김진성	김후남	□	박민철	박윤수	박홍민	서영균	송경섭	심희원	오성문	유윤자
김진아	김흥대	□	박보경	박은지	박히준	서영실	송경인	○	오세봉	유은정
김진주	김희라	마서영	박보영	박인철	반준호	서원교	송권찬	○	오세윤	유인선
김진희	김희상	마현희	박봉규	박자은	방서현	서은혜	송기휴	안광석	오승주	유장준
김창기	김희정	명서영	박봉규	박재규	방태훈	서재현	송명진	안광현	오승택	유재욱
김창남	김희정	모경륜	박상국	박재영	배가람	서정보	송미연	안덕균	오애환	유재홍
김창목	김희정	모원경	박상우	박재우	배경민	서정준	송병권	안동근	오영길	유정목
김창욱	김희진	문경민	박상일	박재형	배금옥	서정현	송병섭	안범철	오영복	유정민
김창현	김희환	문명준	박상현	박정숙	배문서	서정호	송병익	안병주	오영석	유정순
김창희		문병원	박상현	박정영	배소영	서한선	송수정	안세영	오용탁	유정아
김채은	L	문상관	박상희	박정주	배수현	서행용	송영주	안수찬	오은경	유정현
김천형	나근희	문상기	박서령	박정화	배아란	서현정	송영호	안승범	오정숙	유제겸
김철완	나기선	문성국	박선화	박정희	배요한	서형권	송우정	안승주	오정훈	유창민
김태경	나유나	문수영	박성구	박종률	배지윤	서형심	송유례	안영민	오종민	유채은
김태광	남궁혁	문용재	박성규	박종명	배현수	석창훈	송유진	안영욱	오주환	유태성
김태우	남기섭	문일주	박성욱	박종민	배현진	선윤정	송유진	안영훈	오준근	유태형
김태이	남보현	문종택	박성진	박종범	백가은	선종호	송재민	안윤옥	오준호	유해수
김태중	남상수	문지윤	박성진	박종석	백민규	선효재	송정화	안장혁	오중석	유현경
김태진	남성민	문지희	박세은	박종호	박서연	설한봉	송주빈	안재훈	오태경	유현석
김태희	남성진	문필동	박세현	박주영	박선우	성건석	송지훈	안지원	오태석	육순임
김평섭	남순건	민경은	박소현	박준신	백성선	성수찬	송찬우	안태정	오태호	육순형
김풍덕	남윤호	민관동	박수란	박준영	백승선	성은재	송채민	안혜은	오현정	윤다혜
김필수	남주완	민형기	박수용	박준하	백영란	성정하	송혜경	안혜정	오현택	윤동주
김하늘	남천		박수인	박지영	백운식	성준모	신가은	양고운	오형나	윤분탁
김하빈	남혜정	■	박수일	박지용	백유상	소미경	신광수	양민욱	오희경	윤상협
김학원	노금희	박경리	박수자	박지원	백중숙	소준호	신기준	양성익	왕명자	윤서연
김학정	노대건	박경진	박수중	박지혜	백지수	손가연	신동숙	양승범	왕영숙	윤석경
김혁래	노진화	박경협	박숙녀	박진미	백지원	손경현	신동욱	양영림	왕수중	윤성상
김현서	노한나	박경희	박순복	박진수	백형환	손복만	신명남	양웅모	우동연	윤성우
김현석	노현정	박균성	박순이	박진수	변규미	손성호	신미순	양은덕	우희철	윤순미
김현성	노희정	박근성	박승규	박진호	변승호	손수민	신상협	양인보	원동희	윤순옥
김현수		박금순	박승우	박진희	변영주	손수민	신아윤	양현택	원예달	윤용식
김현식	■	박기남	박신애	박진희	변현호	손승연	신양섭	양호	원창연	윤인자
김현준	도경림	박기순	박신의	박채윤	변호현	손승철	신영례	엄유진	원호영	윤종환
김현지	도지원	박나리	박연진	박청아	부백	손영재	신영옥	엄윤호	유기현	윤지원
김형규	도혜원	박다빛	박영석	박태영	부성희	손영현	신용철	엄재영	유건호	윤진원
김형성	동상재	박도연	박영수	박태진	부영민	손예지	신원균	엄태웅	유경민	윤철균
김혜리		박도현	박영식	박택운		손용락	신재호	엄혜욱	유광민	윤태석
김혜린	■	박동현	박영재	박하영	■	손윤석	신정우	여민기	유길호	윤태일
김혜현	류계현	박명서	박영준	박한중	서강석	손윤희	신주하	여상윤	유수진	윤태호

윤택	이병철	이승영	이정길	이천화	임영진	장혜정	정예진	정현승	조홍규	최석호
윤현수	이보배	이승은	이정수	이충영	임옥순	전동환	정용석	정현철	조희령	최선영
윤현준	이봄비	이승재	이정원	이한규	임용식	전봉임	정용우	정현향	주선형	최선호
윤형	이봉주	이승하	이정은	이한규	임윤숙	전성호	정우상	정혜련	주은혁	최성규
윤혜정	이상규	이시백	이정은	이한별	임재심	전소영	정윤희	정혜영	주지원	최성욱
윤혜현	이상민	이안나	이정현	이한순	임종우	전숙	정원규	정휘진	주현미	최수진
윤홍빈	이상민	이애리	이정현	이현	임준원	전영수	정원석	정희선	주형배	최수현
윤화자	이상수	이역이	이정훈	이혁준	임지연	전영은	정원석	정희재	지경태	최승연
윤희철	이상용	이영구	이종길	이현민	임지우	전영지	정원식	정희진	지구삼	최승용
음재순	이상원	이영복	이종락	이현정	임지원	전윤희	정원태	제갈종대	지선녀	최승재
이가용	이상위	이영선	이종무	이현주	임채덕	전은실	정윤배	조기호	지성환	최안순
이강민	이상은	이영숙	이종범	이혜란		전재영	정윤지	조동환	지용석	최연숙
이건	이상임	이영식	이종석	이혜련	ㅈ	전정덕	정은경	조두행	지유라	최연우
이건형	이상준	이영신	이종수	이혜진	장경숙	전정환	정은지	조미소	지준선	최연주
이경래	이상화	이영재	이종수	이호	장기명	전준호	정의용	조미희	진민호	최영은
이경욱	이상훈	이영훈	이종혁	이호기	장대식	전준환	정의현	조병락	진영종	최영태
이경일	이상훈	이용광	이좌지자	이호선	장덕환	전중환	정이나	조병렬	진욱	최예은
이경진	이새한	이용석	이주경	이호인	장문석	전지영	정인경	조복동	진호	최예지
이경현	이서윤	이용섭	이주빈	이호재	장미경	전지윤	정인경	조석순		최용안
이경혜	이석근	이용성	이주현	이홍규	장미희	전하영	정재돈	조선용	ㅈ	최용원
이경희	이석주	이용정	이주희	이회남	장민혁	전현신	정재호	조성은	차덕영	최우인
이경희	이석준	이용현	이준규	이회은	장민환	정권혁	정정운	조성훈	차상현	최우진
이계희	이선규	이유진	이준우	이호석	장봉기	정규보	정정철	조소연	차종환	최운섭
이광봉	이선미	이윤숙	이준태	이후신	장성은	정기용	정제윤	조수빈	차준심	최원호
이광조	이선우	이윤희	이준호	이흥순	장순이	정누리	정종천	조아련	차지훈	최유미
이광희	이성미	이은상	이준희	이희순	장아름	정다빈	정종태	조앙래	차충환	최윤미
이규선	이성범	이은순	이준희	이희영	장영표	정담희	정종화	조영순	채근준	최윤영
이규준	이성선	이은옥	이지선	이희원	장예진	정동준	정주영	조용남	채민	최윤정
이금	이성애	이은주	이지선	이희정	장용석	정무수	정주원	조용희	채윤병	최윤희
이기욱	이성열	이은주	이지우	이희포	장용자	정민석	정준호	조원현	채은혜	최은수
이기원	이성윤	이은혜	이지현	인경수	장우창	정민섭	정지영	조유정	천경년	최은주
이기전	이성훈	이용규	이지현	인창식	장윤석	정민숙	정지원	조윤제	천희찬	최은주
이기정	이세준	이용석	이지혜	임강준	장은석	정민자	정지원	조은채	최경욱	최은희
이길연	이소연	이의주	이지혜	임경린	장인석	정민제	정진모	조은화	최광선	최인건
이길우	이소연	이인규	이진무	임관혁	장인숙	정민홍	정진무	조익현	최광준	최재연
이다연	이수린	이장훈	이진미	임교범	장정화	정상엽	정진숙	조장희	최규리	최정순
이다인	이수복	이재동	이진수	임규섭	장준복	정상은	정진영	조정래	최기원	최정우
이도연	이수영	이재민	이진아	임대영	장준현	정서영	정진훈	조정우	최문식	최정우
이동재	이수정	이재성	이진용	임도이	장준희	정서현	정창모	조정호	최민식	최정인
이동준	이수진	이재순	이진주	임부자	장지성	정석훈	정창현	조정훈	최병준	최정혜
이동현	이수현	이재열	이진표	임사비나	장지호	정선화	정채연	조종희	최병희	최종서
이동호	이숙경	이재우	이진혁	임서연	장창영	정성모	정태언	조준용	최봉용	최종훈
이만균	이순식	이재욱	이창건	임서은	장채윤	정성현	정태일	조종환	최부영	최주철
이미숙	이순진	이재웅	이창민	임선홍	장철호	정숙자	정파진	조진성	최상은	최준혁
이민우	이승규	이재은	이창주	임성열	장한걸	정순희	정하연	조진연	최상현	최지선
이민철	이승민	이재인	이창훈	임세웅	장형서	정승호	정해량	조창오	최서연	최지연
이민형	이승민	이재천	이채윤	임여진	장형진	정시원	정현중	조한욱	최서희	최지연
이범순	이승연	이재현	이천일	임연희	장혜수	정영재	정혁상	조해성	최석중	최지우

최지윤 한치근 황석중
 최지희 한훈 황선빈
 최진구 함대현 황선희
 최진무 함현지 황옥선
 최진영 허남화 황용국
 최진우 허두용 황윤섭
 최창균 허성혁 황은숙
 최창용 허성훈 황은정
 최필호 허수영 황인성
 최해성 허유진 황인철
 최현미 허윤호 황정순
 최현희 허임순 황준태
 최형민 허정일 황지영
 최혜숙 허제 황지홍
 최호석 허종례 황진국
 최호선 현윤호 황정자
 최호영 현혜원 황학진
 최환우 호중빈 황향
 추현주 흥경희 황현도
 흥나래 황혜숙
 흥명기 황호원
 흥명희 황희선
 흥민석
 흥범석
 흥범일
 흥석표
 흥성열
 흥성윤
 흥성화
 흥아름
 흥양숙
 흥여준
 흥우혁
 흥유진
 흥전일
 흥지아
 흥지운
 흥진숙
 흥진욱
 흥춘기
 흥해정
 황규영
 황남석
 황덕상
 황동환
 황범주
 황봉희

ㅎ

하료호
 하병주
 하성민
 하시은
 하안나
 하은주
 하지민
 하지선
 하지원
 하창현
 한경희
 한관희
 한대희
 한덕영
 한도연
 한명남
 한명숙
 한미연
 한미영
 한새봄
 한서현
 한수현
 한승구
 한인상
 한자경
 한종원
 한창용

ABC

Baye Boucar Diouf
 chen jiaawang
 CHEN SONGZHE
 FENG TING
 Ho Wing Sze
 IMRAN MD SHAHID
 JIANGSHUFANG
 JOHN DEEPIKA M
 KEWALIN SIMUANG
 KITAUCHI DAITO
 LI PING
 LU RONGJIA
 LuRonglia
 Mallory Mativenga
 NG HONG WANG AUSTIN
 SAKAWA Yasuhiro
 TANGZHUOLIN
 Tetsuya Magara
 VINICIO ALEJANDRO ROSAS
 CERVANTES
 Walker Bright James
 YANG YI
 YU HUNG PIN
 ZHAO CHENLU

기관 및 단체

(재)울촌재단
 (재)이희건 한일교류재단
 (재)주리원장학재단
 (주)다날유니펀
 (주)엑스에스
 (주)이가
 (주)이지웍스뉴미디어
 (주)훈프로
 ACAA
 TheKIM
 가나이비인후과
 강남구청장학
 거북이한의원
 경희림다한의원
 경희한의원
 고내과

곽이비인후과
 구&배 소아청소년과
 그린탑약국
 김외과의원
 김태영외과의원
 노무법인 노무스
 녹둔영농조합법인
 다나이비인후과
 도서출판하우
 명진한의원
 무진환경도예
 미성형외과
 미소린치과
 바른경희한의원
 바른정형외과
 바른플란트치과의원
 백산한의원
 백승현임대
 법률사무소 비상
 벽적골민음한의원
 서울S비뇨기과
 서울한의원
 성모정신과의원
 송파김내과의원
 시크릿성형외과의원
 오리클치과
 오스템올소돈틱스
 유노치과
 윤종욱이비인후과의원
 이중연내과의원
 이포넷체리 기부모금함
 정용수한의원
 제이티미디어
 지원모터스(주)
 체감한의원
 코리아병원
 코스비한의원
 퀘드미디어
 크치치킨
 키우미한의원
 평택외과의원
 하나정형외과의원
 해맑은아이치과
 허브치과의원
 현대경희한의원
 흥해롱치과

경희 후원의 집

(주)당독	감미야 영통점	명가한의원	어장군	총각칼국수
(주)목꾸안	김앤박이비인후과	반월	에잇올리	크로네
(주)신진	나비발레스튜디오	베나레스	엘케이컴퍼니	파르테
(주)이상	노바이탈리아노	변호사 강석보 법률사무소	연우피앤씨	평화철물건재
8번가(영통동)	뉴델리	복비뇨기과	영통복요리	한국난원
8번가(회기동)	다우전재(주)	비금도	오르다치과의원	한국순대
EPL	동진식당	비반트	오피스넥스 수원점	현강약국
Haru&Aki Flowers	등촌샤브샤브칼국수	삼부자갈비	유성관	훗카이도
경희꽃화원	때지	상그라	유성빌딩	홍학
경희대 스포츠 클리닉	리후찬팅	서천세어하우스	장터밥상	화이트켓
경희대 예방태권도	마구로준	소담샤브칼국수	주호식당	휘경인삼사우나
고기아미안해	맘스터치	소울피(SoulP)	착한낙지	
곰헤어	메모아르	아이데코안경	청솔디자인	
광주회관	메콩타이 영통점	아지트라이브	초우마을	

아레테 클럽 가입교원

구분	대학	성명	구분	대학	성명	구분	대학	성명
서울 캠퍼스	경희대학교 총장	한군태	서울 캠퍼스	생활과학대학	김연하	서울 캠퍼스	이과대학	황철수
		김중섭			김준태			김병호
	박인철	박정호			김성수			
	유공조	서소정			김성운			
	유원준	이현정			김수중			
	정지호	장경은			김우식			
	김정부	장윤혁			김 원			
	김학민	정소진			김진배			
	권오병	제유진			김희상			
	김민경	주서령			동석호			
	박주석	한명주	박용구					
	서영호	구현주	박은정					
	윤여준	권장혁	반건호					
	장혜정	김윤희	오승준					
	정민영	김주훈	우정택					
	최연식	박규창	윤성상					
	황문호	서민철	윤태영					
	고재윤	안정선	이상목					
	구철모	유건호	전 속					
	김명자	유정철	조윤제					
변정우	이기태	조정제						
이규민	장 진	허영범						
이충기	전종득	박영국						
정남호	주성재	박준봉						
			치과대학					

구분	대학	성명	구분	대학	성명	구분	대학	성명
서울 캠퍼스	치과대학	이효설	간호과학대학	서울 캠퍼스	석소현	국제교육원	이정희	
		홍성진			신성희		조현용	
	한의과대학	김성훈			신현숙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김호철			신혜숙		박정훈	
		남동우			윤은경	인문융합연구센터	정완용	
		박성규			이지아	공과대학	최광준	
		박정미			임여진		김선국	
		배현수			장미희	오종민		
		백유상			장애경	이용택		
		서병관			정연희	장운석		
		심범상			최지선	정원석		
		이수경			한정원	전자정보대학	김진상	
		임사비나			황원주		한승무	
		장규태			황지인	소프트웨어융합 대학	허의남	
		장문석	강석희	응용과학대학	홍충선			
		조성훈	김희라	국제 캠퍼스	생명과학대학	이동훈		
	약학대학	김남중	양고운			강동호		
		김동현	윤진원			강세찬		
		류종훈	이아경			김미주		
		서혜선	이윤정			김해영		
		이경태	정준수			손문기		
		이종길	노진아			손영숙		
		인경수	박미나			유정목		
		임동순	김영미			정기홍		
		장영표	김지영			외국어대학	김영주	
		정은경	안병주	황수현				
		최진우	윤미라	체육대학	전익기			
		간호과학대학	강영미		이은배	한광령		
			김연정	조영하	유재환			
			김주희	지은림				
	라인서		송상호					
	박선희	손혁상						

기부 예우

예우 프로그램

경희 발전을 위한 기부자님의 따뜻한 사랑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품격 있는 예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구분	예우 내용	매그놀리아 클럽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창의	창조	청운	선승	평화	고향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기념품 및 간행물	감사장 및 감사 선물, 간행물, 달력 증정	○	○	○	○	○	○	○	○	○
	감사패		○	○	○	○	○	○	○	○
특별 초청	교내외 공연 및 만찬 등 행사 초청	○	○	○	○	○	○	○	○	○
명예 헌정	명예의 전당	○	○	○	○	○	○	○	○	○
	기금 명칭 부여			○	○	○	○	○	○	○
학교 시설 이용 편의	평생 도서관 출입증			○	○	○	○	○	○	○
	평생 차량 출입증			○	○	○	○	○	○	○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프로그램 할인	본인 70% 직계 존비속 30%		본인 100% 직계 존비속 50%		본인 100% 직계 존비속 70%				
의료 예우	VIP 진료 서비스			○	○	○	○	○	○	○
	의료비 감면	본인 10%	본인 30%	본인 50% 배우자 30%	본인 70% 배우자 50%	본인 100% 배우자 50%	본인 100% 배우자 70%	본인 배우자 100%	본인 배우자 100%	본인 배우자 자녀 100%
		10년		20년	본인·배우자 평생(자녀 20년)					
건강 검진권 증정	1회(최초) (의료기관 기준 적용)		기본 검진권 2매	150만 원 검진권 2매	200만 원 검진권 2매			300만 원 검진권 2매		
	추가 지원 (본인 및 배우자)		기본검진권 2매 1회 제공	기본건강검진권 2매 5회 제공 (2년 주기)			기본건강검진권 2매 10회 제공 (2년 주기)			
	타인 양도 불가 / 10년 이내 지급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경희의료원 40%, 강동경희대병원 20%		무료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할인은 상호회사 가입 시 제외									
명칭 부여	로비 명패	강의실·실험실 명칭							건물 명칭	

네이밍 예우

건물, 강의실, 회의실, 기자재 등에 기부자의 소중한 귀한 뜻을 담아 드립니다.

세제 혜택 (법정기부금)



개인 기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내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초과분은 기부금의 30% 세액 공제)



법인 기부

법인세법에 따라 연간 이익 금액의 50% 범위 내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 기부

유증 및 사인증여, 상속인의 상속 재산 출연 시 기부금 전액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됩니다.(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부 시)



해외 기부

미국 거주자(납세자)는 미연방국세청 (IRS) 면세승인기관(501-C-3)인 경희국제재단(KHIF, Kyung Hee International Foundation)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경희에 큰 사랑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당신께 드리는 아주 특별한 예우, 품격있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소중히 보답하겠습니다.

● 아너스클럽 회원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은 경희에 큰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경희만의 특별한 기부자클럽으로 모시고 '경희 100년'의 새길을 함께 열고자 발족했습니다. 경희가 명문사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학교 모금사업에 총 1억 원 이상 후원한 기부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고향 30억 원 이상 후원

평화 20억 원 이상 후원

선승 10억 원 이상 후원

창의 1억 원 이상 후원

창조 3억 원 이상 후원

청운 5억 원 이상 후원

(주)한독모터스 박신광 회장 아너스클럽 위촉식

장성민 원장 아너스클럽 위촉식

● 아너스클럽 예우 프로그램

품격 있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아너스클럽의 멤버십을 누리십시오.

- | | |
|---|------------------------|
| 기부금 전달식 개최 | 총장 초청 오찬·만찬 초대 |
| 명예의 전당(Donor's Wall) 헌정 | 신규회원 건강검진권 제공 및 의료비 감면 |
| 아너스클럽 VIP카드 발급 | 특별인터뷰 기사 게재 |
| 다양한 문화행사 초대
(학교주관 특별행사, 음악회, 문화탐방 등) | 맞춤형 예우 |

아레테(Arete) 클럽

나눔을 통해 행복을 실천하는 교원 클럽

아레테는 탁월함, 최상의 상태, 최선의 상태를 뜻하는 그리스어로서, 소크라테스는 선을 추구하는 좋은 삶을 아레테라고 보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을 위해선 미덕(Arete)을 쌓고,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베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희 아레테 클럽은 기부를 통한 나눔으로 행복을 실천해나가는 교수님들을 위한 교원 클럽이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달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가입 및 금액별 예우안내

대상 경희대학교 소속 교원
방법 약정 후 급여공제로 발전기금 납부(발전기금 사용 용도 : 해당 교원 지정 가능)

● 신규 교원 가입시 금액별 예우 내역

구분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월 기부액	월 8.5만 원	월 14만 원	월 28만 원
가입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희의료원 공진단(5알) • 경희와인 • 연구실 앞 명패 부착 • Welcome K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희의료원 공진단(10알) • 경희와인 • 연구실 앞 명패 부착 • Welcome K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희의료원 공진단(20알) • 경희와인 • 연구실 앞 명패 부착 • Welcome Kit
약정식	대외협력처장 주재 약정식	대외부총장 주재 약정식	총장 주재 약정식
연하장 및 달력	총장서신, 연하장 및 달력	총장서신, 연하장 및 달력	총장서신, 연하장 및 달력
주차권	-	평생무료 주차권	평생무료 주차권
건강검진권	-	기본검진권 2매	150만 원 상당 검진권 2매
명절선물	-	-	설,추석 명절 선물

※ 월 기부금액은 재직기간 30년 기준 발전기금 납부액이 0원일 경우 금액으로, 교원별 재직기간 및 본교 납부한 발전기금 총액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기존 기부교원 가입 시

- 발전기금 3천만 원 이상 납부 교원 : 명패 제공
- 발전기금 5천만 원 이상 납부 교원 : 명패 및 평생무료 주차권(스티커 포함) 제공
- 공통 사항 : 추가 발전기금 약정 및 납부 시 해당 금액에 따라 가입선물 제공

기부 달성 축하

정년퇴임 시까지 기부하는 장기간 프로그램인 만큼 기부 달성률에 따라 감사의 마음 전달

50% 달성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 감사 서신 • 50% 달성 축하선물
100% 달성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로운 퇴직이 될 수 있도록 정년퇴임 시기에 감사패 전달식 및 Focus 기사 게재 • 소속 대학 강의실 등 네이밍 예우 • 총장 감사 서신 및 퇴직 선물

기부금 세제 혜택 안내

근로소득 금액 100% 세액공제 인정 대상 금액임
당해연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1천만 원 이하	절세혜택 예시 근로소득 범위내에서 15% 공제 연간 기부금 360만 원 경우 $360만 원 \times 1.5\% = 54만 원$ 입금
1천만 원 초과	절세혜택 예시 근로소득 범위내에서 30% 공제 연간 기부금 3천만 원 경우 $\{(1천만 원 \times 15\%) + \{(3천만 원 - 1천만 원) \times 30\%\}$ $= (150만 원) + (600만 원) = 750만 원$ 환급

※ 대학에 기부한 발전기금 전액은 대외협력처에서 일괄 국세청에 등록함으로 연말정산 시 별도 영수증 제출 필요없음
※ 발전기금 약정 중단 시 납입 기간에 따라 환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가입 선물



웰컴 키트



경희의료원 공진단



연구실 앞 명패



평생무료 주차권



경희 와인



아레테 클럽 Story

아레테 클럽은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한 교원 커뮤니티이다. 가입 대상자는 경희대 소속 교원으로 총 3천만 원 이상 기부하거나, 약정한 자이다. 기부 교원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구성원의 기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한 커뮤니티이다. 아레테 클럽에 가입한 교원은 연구실 앞 명패 제공, 무료 주차권 등 대외협력처가 제공하는 다양한 예우를 받으며, 가입자를 위한 특별 공연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부 교원 간 소통과 교류를 진행한다. 아름다운 나눔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은 아레테 클럽은 많은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문의가 이어지는 등 관심과 성원을 받고 있다.

간호과학대학은 교수 19인 전원이 아레테 클럽에 가입하였다. 석소현 학장은 “2005년 신입 교수로 경희 가족이 되며 기부를 시작했다. 기쁜 마음으로 기부해왔는데, 아레테 클럽을 만들어 작은 마음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약정식에 오면서 간호과학 대학 교수진의 경희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개인에게는 큰 금액일 수 있지만 매달 조금씩 나누면 그 마음이 쌓인다고 생각했다”라고 기부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런 기부 문화가 우리 대학의 전통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이 기부금이 경희의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 발전과 혁신에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런 기부문화가
우리 대학의 전통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이 기부금이 경희의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 발전과
혁신에 쓰이길 바란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8월 10일(목) 본관 213호

기부 참여 안내

기부 방법

현금 기부

일시 및 분할 납부, 자동이체 정기 후원 (월간·연간)이 가능합니다.

유가증권 기부

주식 출연이 가능하며, 상장 주식은 증가 기준으로 기부 금액을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81조)

유산 기부

유산 전체 또는 특정 재산으로 출연 약정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상속 재산을 출연하실 경우 상속세가 면제됩니다.(유언공정증서 작성, 신탁 상속 계약 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기부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 출연 금액을 책정하며, 기부금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기부

경희국제재단(KHIF)은 미연방국세청 면세 승인기관으로 경희국제재단을 통해 기부하시는 미국 납세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방법

일반 약정

발전기금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문자 (촬영 후 전송), 팩스나 이메일, 우편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및 방문 약정

전화하거나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약정

홈페이지(give.khu.ac.kr)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p>서울캠퍼스</p> 	<p>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경희대학교 본관 410호 전화 02-961-0932~3, 2371 팩스 02-961-9400 문자 1599-3892 이메일 give@khu.ac.kr</p>
<p>국제캠퍼스</p> 	<p>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대학본부 103호 전화 031-201-3190~1 팩스 031-201-3192 문자 1599-3892 이메일 give@khu.ac.kr</p>

납부 방법**무통장 입금**

편하신 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하나은행 278-810023-98605

국제캠퍼스 하나은행 428-141962-19304

자동이체(CMS)

약정한 은행 계좌에서 지정 기부금액이 (매월) 납입됩니다.

교직원 급여공제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교·직원은 급여공제를 통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기부자가 요청하는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기부

경희국제재단(Kyung Hee International Foundation, KHIF)은 미국의 연방 세무국(IRS) 501 (C)(3)규정에 의거 2001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모든 기부금은 미연방 세무국으로부터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특히 KHIF는 경희학원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하여 미주지역에 거주하시는 경희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단체이며, 하와이나 알래스카 등 미국연방 어느 곳에서도 경희 동문이 아니더라도 KHIF 로 기부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희국제재단 문의처(노상석 이사장) : 201-647-8177 / 이메일 : noah@khif.org

